

대학원생 상담/01/

## 유튜브를 활용한 기독교상담 연구

정선경 (고신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과정)

### I. 서론-유튜브에 빠진 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만 3세 이상 인구의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이용률은 91.5%('17년 대비 1.2%p ↑)이며, 가구 인터넷접속률은 99.5%로 거의 모든 가구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2012년 82.3%를 기점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72.4%에 불과했다. 이는 스마트폰 대중화(스마트폰 보유율 94.8%)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sup>1)</sup>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매체가 이동하는 변화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 안에 PC가 가능하게 됨으로서 내가 원하는 즉시(즉시성), 이동 중 어디서나(휴대성), 공간을 초월하여(활용성), 전 세계 누구와도 대화(사회성)가 가능하게 됨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명제가 보여주듯이 이 세대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며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sup>2)</sup>'의 시대를 열었다. 스마트폰을 갖고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대인관계는 물론 학습과 여가, 금융과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삶의 광범위한 영역을 스마트폰을 통해 영위한다. 그 가운데서도 200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YouTube) 사용은 압도적으로 우세에 있다.

2019년 1월 전 세계 유튜브 사용자의 시청시간은 하루 10억 시간, 월 이용자수는 19억에 이르며 업로드 되는 동영상은 1분에 400시간에 달한다.<sup>3)</sup> 국내의 이용자 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와이즈앱(앱·리테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8월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별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 이용시간이 총 460억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이는 지난해 8월(333억분)보다 38% 증가한 결과로서, 유튜브의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은 1391분을 기록하였다. 이 중 10대는 1인당 평균 2500분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1인당 평균 1882분, 50대 이상이 평균 1206분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30대와 40대의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은 각각 1105분, 847분이었다. 유튜브의 월 사용자수(MAU)는 3308만명으로 작년 동기(3093만명)보다 7%가 늘었다.<sup>4)</sup>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2. 25.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lId=mssw311&artId=1617840>

2)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2015년 3월,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내용을 실은 표지기사 게재한 이후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든 현대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재봉(2019), 『포노 사피엔스』, 파주: 쌤앤파커스, 25.

3) 미주중앙일보, 2019. 8.31. 유튜브 스타가 알려주는 '유튜버' 지름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558312](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558312)

4) 블로터, '유튜버' 폭 빠진 한국, 월 사용시간은 460억분. 2019. 9.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5022>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또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만15-34세 유튜브 크리에이터 영상 이용행태 및 인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은 전체 평균 2시간 2분(122분)으로 나타났다. 15-34세 유튜브 소비자의 70.6%가 최근 1개월 내 1인 크리에이터 영상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고 이는 지난 해 진행된 개인방송 시청 경험률(51.3%)과 비교하여 약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1인 크리에이터 영상을 가장 집중해서 보게 되는 상황은 휴식시간(42.1%), 잠자리에 들기 전(41.4%)순으로 저녁 9시~12시(37.4%)에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 특별히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은 46.5%로 가장 즐겨 찾았고, 이 중 10대 후반의 경우 83.6%로 라이브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송 중 댓글을 달거나 대화에 참여해 본 경험 역시 10대(60.8%)에서 두드러지고 있다.<sup>5)</sup>

한마디로 '유튜브 전성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모든 길은 유튜브로 통한다고 할 만큼 유튜브의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단순한 오락의 기능으로부터 학습과 언론, 정치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콘텐츠의 집합장인 동시에 누구나 소비자이면서 또한 콘텐츠의 생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슈머(prosumer)'의 시대를 열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통해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을 통해 콘텐츠 개발과 유통이 용이해진 것을 뜻하는 세상이 펼쳐진 것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 삶의 중요한 영역들은 유튜브와 관련을 맺고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심리상담의 영역에서 만큼은 유튜브와 관련된 활동이 제한적이거나 왜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문상담가들이 유튜브 안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튜브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일이 많고, 기독교 상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튜브의 기능적 특징을 살려서 기독교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현실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내적인 어려움이 유튜브 안에서 손쉽게 도움을 받고 건강한 심리적, 영적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유튜브의 특징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참여(participation), 개방(openness), 대화(conversation), 커뮤니티(communitiy), 연결(connectedness)의 기능을 갖추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매체인 동시에 개인의 일상사와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이다. 플랫폼은 본래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류장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람들을 모으고 새로운 목적지로 보내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현대 사회는 이 용어를 기술 혁신을 통해 사람과 사람 또는 사물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제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한다.<sup>6)</sup> 이러한 플랫폼의 소셜화는 정보통신기술의 주요한 트렌드로 인맥형성, 집단지성의 협업이 강조되고 관계 중심의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sup>7)</sup>

이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유튜브를 통해 이용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은

38308만 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한 달 동안 앱의 사용자들이 머무른 총 체류 시간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집단의 성별·연령별 인구분포와 스마트폰 사용 비율을 고려해 전국에서 10세 이상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4만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했다.

5)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가 말하는 유튜브의 모든 것'. 2018. 9. 10. <https://www.20slab.org/>

6) Geoffrey Parker, Marshall W. Van Alstyne, Sangeet Paul Choudary, 「플랫폼 레볼루션」, 이현경 역(서울: 부치, 2017), 32-37

7) 김문구, 박종현, 조영환, 2010. 현히 보이는 IT 소비자행동의 이해. 서울: 전자신문사.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동영상 및 뉴스 검색, 댓글읽기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활동(information gathering activity)이다. 두 번째는 특정 동영상이나 글에 대한 댓글쓰기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opinion formation activity)이다. 세 번째는 동영상 콘텐츠 재생산 활동(contents production and reproduction activity)이며, 네 번째는 유튜브 공간에 존재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다른 온라인 공간으로 옮기는 동영상 콘텐츠 공유 활동(contents sharing activity)이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다른 SNS의 수단을 이용해 친구 맺기 등의 공동체 형성 활동(fan community formation activity)이다.<sup>8)</sup> 이러한 유튜브의 특징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독특한 점은 동영상을 이용해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소통 방식에 있다.

그렇다면, 유튜브 내에서의 커뮤니티를 통해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을까? 2013년 인기 유튜버 필립 디프랜토(Philip DeFranco)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유튜브를 즐겨찾던 팬(퇴역 군인)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해 준 일이 있었다. 전세계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모이는 2016년 비드콘(VIDCON) 행사 때 무대 인터뷰에서 디프랜코는 이렇게 말했다.<sup>9)</sup>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연결 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 비디오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나를 지켜봐 온 한 사람 덕분에 새로운 신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증을 제안한 사람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온라인상에서의 연결이 이렇게 놀라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연결되느냐에 따라 노출도가 결정되는 시대이며 이러한 현실은 사용자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유튜브 시대의 인제는 진정한 소통의 능력을 갖추고 구경꾼을 넘어서 조력자로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되길 원한다.<sup>10)</sup> 이렇듯 창의적인 작업물들이 공유되고 가치와 이윤을 창출해내는 기회의 장으로서의 유튜브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시간차 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그 기능이 확대된 것이다.

### III. 유튜브 상담의 현실

#### 1. 운세 등 인생상담을 자처한 미신적 행위들이 장악한 현실

현재 유튜브에서 상담의 세계는 무속인들이 장악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튜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관련 콘텐츠들을 살펴보기 위해 상담, 상담사, 상담심리 등을 검색해보았을 때, 유명강사의 강의나 사주, 운세 등 과거 점쟁이나 무속인들이 해왔던 인생상담을 디지털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인생의 궁금증을 안고 점집을 찾았던 사람들이 사이버 운명철학관으로 몰려드는 형국이다. 특히 상업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들의 경쟁은 일반 유튜버들에게조차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선정적인 문구와 홍보를 통해 시선을 모으면서 전문적인 상담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상을 낳고 있다.

유튜브 안에서 발견되는 상담은 상담의 내용과 상담가의 전문성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상담

8) 송영은, 장원호, 2013. 유튜브(YouTube) 이용자들의 참여에 따른 한류의 확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155-169.

9) Kevin Allocca, 「유튜브 컬처」, 엄성수 역(서울: 스타리치북스, 2018), 392-393.

10) 위의 책, 393-395.

의 내용은 가히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재무 상담이나 가족 상담부터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병리학적인 전문분야의 상담에 이르기 까지 유튜버들의 온갖 문제들이 상담의 형식으로 유튜브에는 진열되어 있다. 이 상담문제를 해결하는 상담가 또한 다양해서 유명 강연가들에 의한 대중상담과 상담전문가들의 학술적인 식견이 들어간 전문상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 유튜브 상담의 형식들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상담 관련 콘텐츠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상담심리 관련 이론 강의 등 지식전달이 주도하는 채널이다. 대표적인 채널로서 64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확보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있다. 세바시 강연(Sebasi Talk)<sup>11)</sup>은 상담심리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조회수 613만회를 기록한 제118회 김창옥 교수님의 ‘나는 당신을 봅니다’를 비롯하여 김지운 소장님의 ‘서로 잘 만지고 계신가요?’, 이명수 심리기획자의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등 주로 상담심리 관련 주제 강연이 상위권에 있다.

두 번째는 에피소드 위주의 채널로서 유튜브에서 상담을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법륜스님의 즉문즉설’<sup>12)</sup>이 대표적이다. 채널의 제목대로 현장에서 전달받는 청중의 고민과 질문을 즉각적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불교인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인기가 높다. 구독자 수만 63만 5천명이 넘고, 제653회 ‘사주팔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정말 있는 건가요?’의 경우 조회수는 무려 659만회를 기록했다. 비슷한 형식의 채널로서 ‘홍성남 신부님의 톡쏘는 영성심리’<sup>13)</sup>와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sup>14)</sup>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인터뷰 형식으로 이용자나 내담자를 초대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People & Blogs, 2016-09-14, 구독자 3.65만 명, 최고 조회수 28만회)<sup>15)</sup>를 대표적인 채널로 볼 수 있다. 내담자가 메일로 상담내용을 보내면 ‘황심소’의 주제별 코너에서 일반인 패널과 함께 나누게 된다. 인터뷰 형식으로 연애, 사업, 재무, 법까지 일상생활의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시사, 심리 엿보기, 정치인 유명인 상담, 황심TV맛보기 등은 사회적 이슈를 심리전문가 다룬다는 것 외에 전문 상담채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외에 국외에서 활동하는 상담심리채널 중에 MedCircle(United States, Education, 2016-11-30, 구독자 34.3만명, 최고 조회수 709만)<sup>16)</sup>이 있다. 이 채널은 더 투데이 쇼, CNN, 뉴스위크 등의 방송에 출연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되어 나르시스트,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차이점, 해리성정체장애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등의 정신병리학적 주제를 가지고 실제 내담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편집하여 제공한다.

네 번째는 현재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유튜브를 통해 소개하는 형식이다. 대표적인 채널로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과 심리상담(Education, 2010-06-18, 구독자 5.67천명, 최고 조회수 14만회)”<sup>17)</sup>의 누다심이 있다. 이 채널은 전문상담심리사들을 중심으로 강의, 방송출연,

11) 세바시. 2019.10.10. <https://www.youtube.com/user/cbs15min>

12)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2019.10.10. <https://www.youtube.com/user/jungtosociety>

13) ‘홍성남신부님의 톡쏘는 영성심리’. (People & Blogs, 2018-07-14, 구독자 1.67만명, 최고 조회수 12만회) 2019.10.10. <https://www.youtube.com/channel/UC--ugdAUDE-QFVIVxKVeCWQ>

14)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은 구독자 5.24만명, 최고 조회수 42만회) 2019.10.10. <https://www.youtube.com/channel/UCONTlrUj5pVn7LammlleLJg>

15)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10.10. <https://www.youtube.com/channel/UC7uH82-KbrCVDESEcdR-Lg>

16) MedCircle. 2019.10.10. <https://www.youtube.com/channel/UCyGOloOIJWt8NIE4tnejQeA>

책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개인상담, 집단상담(360도 영상)을 녹화하여 실제 방영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진행되는 상담녹화방송의 조회수는 저조한 편이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 채널에서는 ‘긍정의 힘, 말의 시작’과 같은 강연이나 상담심리와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의 조회 수가 높은 편이다.

유사 채널로 실시간 고민상담소 컨셉의 온라인 유료상담 콘텐츠인 “멘탈케어(People & Blogs, 2014-05-14, 구독자 10만 명, 최고 조회수 160만회)”<sup>18)</sup>는 고민상담소, 심리상식, 심리테스트 등 간단한 심리관련 콘텐츠와 함께 실제 진행된 온라인 유료상담 내용을 내담자의 동의 안에 5분가량 편집하여 올리고, 전화유료상담과 24시간 고민게시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최근 상담 전문 어플리케이션나 익명 상담게시판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내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상담사의 일상을 보여주는 채널로서 “심리학자 잇다(People & Blogs, 2019-01-24, 구독자 2.55천명, 최고 조회수 4만회)”<sup>19)</sup>가 대표적이다. 이 채널은 젊은 상담사들이 상담사가 되기 위한 진로과정을 알려주는 채널로서 고민상담, 상담심리의 진로, 책 소개 등과 함께 상담사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상담사의 일상이 궁금하거나 상담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의 호기심을 채우고 있다.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최면 방송을 진행하는 “설기문 마음 연구소(Entertainment, 2010-03-02, 구독자 8.43만명, 최고 조회수 368만회)”<sup>20)</sup>가 있다. 이 채널은 800여 개의 최면 관련 콘텐츠와 두터운 팬 층을 형성하여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 IV. 기독교 상담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모델 찾기

그렇다면 기독교 상담의 오늘은 어떠한가? 학과나 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독교 상담 분야 역시 운영과 적용 패러다임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으며,<sup>21)</sup> 기독교상담학과 졸업자에 비해 상담과 관련된 안정적인 직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교회 내에서 상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필요로 하여 자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몇몇 대형교회에 한정되어 있다.<sup>22)</sup> 기독교상담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영위하기까지 일반상담관련 자격증을 따고 장기간의 훈련과 비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울인 노력에 비해 보상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박우철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상담에 따르면, 이 시대에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담계의 변화는 상담의 기술과 형식의 변화가 될 수 있으므로 미래의 상담의 모습이 오늘날과 유사할 것이라고 전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상담의 접근방식,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 기술 발달로 인한 상담실 밖의 상담, 빈부격차, 사회구조 변화, 철학적 논제의 변화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23)</sup>

본 연구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기독교상담을 적용하는 것이 미래의 대응 방안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 새로운 방법은 유튜브를 통해 상담이 필요한 이들과 또 이들을 연결해 또 다른

17) 누다심. 2019. 10.10. <https://www.youtube.com/user/nudasim>

18) 멘탈케어. 2019.10.10. [https://www.youtube.com/channel/UC5FrwbjA\\_vjmU9nGbjpbwyg](https://www.youtube.com/channel/UC5FrwbjA_vjmU9nGbjpbwyg)

19) 심리학자 잇다. 2019.10.10. <https://www.youtube.com/channel/UCcou5aMzMr6OMsCDovjiAoA>

20) 설기문의 마음연구소. 2019.10.10. <https://www.youtube.com/user/mindapp>

21) 이호선, 2019. 한국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과 방향

22) 김경미, 2018.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과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23) 박우철, 2018.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상담.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05-120

치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지적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형성된 집단 지성을 통해 치유적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독교상담에서 유튜브의 활용은 극히 일부에 제한되어 있거나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 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즐겨찾는 유튜브에서 모델링을 찾아 기독교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익명성과 SNS의 사회적 지지-‘홀딩파이브’

이미 온라인상에는 외로움과 싸우며 수많은 상처를 안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만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다. 시대는 이미 변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도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다른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한 학교폭력 피해자다. 그 당시 내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단 한명이라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친구와 공간이 간절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게 된다면 나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게 계기가 됐다.”<sup>24)</sup>

2014년 7월 왕따로 인해 자살까지 고민하던 고등학생(INT 김성빈 대표)이 먼저 손을 내밀어준 친구를 기억하며 만든 ‘홀딩파이브(Holding Five)’는 10대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왕따로 인해 전화 상담을 받으려 했을 때 이름과 학교를 공개해야 했고 그것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익명성을 보장해주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했다.

이후 ‘홀딩파이브’는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10대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개발된 지 5년이 지난 현재는 집단 괴롭힘을 당한 아이들의 학부모까지 자녀의 사연을 나누고 상담을 받을 만큼 사용자의 범위가 늘어났다.<sup>25)</sup>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형성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대면 관계가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도 지지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사적인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서로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2. 동료지원가와 교회공동체-‘조우네 마음약국’

조울증의 ‘조’와 우울증의 ‘우’를 따서 만든 ‘조우네 마음약국’은 조울증을 앓고 있는 환우와 환우 가족을 위한 채널이다. 고하영 집사(조우네마음약국 대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울증이 시작되어 현재(38세)까지 앓고 있으며, 동생인 고하림 집사 또한 폐쇄병동만 10번 입원 이상 입원할 만큼 조울증이 심각하였다. 형제가 앓고 있는 조울증과 같은 병을 앓는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내(겉사돈)와 함께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컨셉으로 ‘조우네 마음약국’을 만들

24) 투데이신문, ‘홀딩파이브’, 김성빈 “상처받은 10대, 소통의 공간 절실” 2016.11.18.  
[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61](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61)

25) CTS 뉴스, 2019. 7. 3. 왕따의 아픔을 딛고 그들 위해 뛰는 홀딩파이브 김성빈 대표.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04&dpid=251123>

게 된다.

이 채널은 조우네 가족 이야기, 조울러들의 이야기, 조울증 관련 정보, 기독교 콘텐츠 등의 주제를 가지고 조울증을 앓고 있는 본인과 가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더크로스 처치의 세 번째 특수사역으로 2019년 9월 2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회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구독자수 1만9천8백 명, 최고조회수 9천8백회<sup>26)</sup>를 기록했고, 조울증에 특화된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조우네 마음약국’처럼 같은 질병의 정신장애인이 동료로부터 받은 지지와 서비스를 통해 정신과적 증상의 감소, 기능향상, 역량강화, 회복, 희망, 삶의 질 향상 등의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dson et al., 1999; Landers & Zhou, 2011; Pepper & Carter, 2011). 이처럼 지지를 제공하는 정신장애인을 동료지원가(peer provider)라 부르며 이들을 통한 동료지지활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Salzer와 Shear(2002)는 14명의 동료지원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자아존중감과 자기신뢰를 경험하였으며 회복이 촉진되었음을 밝힌바 있다.<sup>27)</sup>

‘조우네 마음약국’의 동료지지활동은 같은 질환을 겪은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환우의 가족의 아픔까지 위로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되고 있다. 이 채널을 통해 만난 이들을 카카오프러스 친구로 확장하여 조우네 가족들이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나아가 한 달에 한 번씩 북스터디 모임을 통한 정기적인 만남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 3.지지적 공동체와 디아코니아-다큐멘터리 ‘중독’과 베텔공동체

2019년 7월 29일 개봉한 김상철 감독(파이오니아21연구소장)의 다큐멘터리 ‘중독’은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게임 등 각종 중독 문제의 현실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과 회복을 위한 길을 찾아가는 내용으로서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포럼, 전문 기간의 사례, 재연을 담아 9년 만에 완성된 작품이다.<sup>28)</sup> 2019년 6월 28일 국민일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상철 감독은 중독에 대한 기독교의 답을 밝힌 적이 있다.

“교회 안팎으로 중독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중독은 영혼의 문제이며, 영혼을 만든 이를 찾아가야 해결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의 답이다.”

인간이 느낀 순간의 쾌락은 우상이 되고 그것이 추구하는 욕망에 지배된다. 욕망은 우리를 속박하고, 속박은 중독으로 이끌어간다. 영화에서는 중독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교회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며 그 대안으로 전 세계 22개국 80개 도시에 있는 베텔(BETEL) 공동체를 제시한다. 김 감독은 “영화는 전 세계 베텔 공동체를 보여줌으로써 중독자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준다.”며 “교회가 중독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sup>29)</sup> 신의 집이라는 뜻의 베텔의 집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만

26) 조우네 마음약국. 2019.10.10. <https://www.youtube.com/channel/UCUxmgtFk6xEoMz6OVqNlgxA>

27) 하경희, 2014. 정신장애인 동료지지활동 프로그램이 동료지원가의 회복에 미치는 효과. 재활복지 18(1), 31-52. 재인용.

28) 노컷 뉴스, 2019. 7.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3253526>

29) 국민일보, 2019. 6.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1212280>

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저 고민은 참 좋은 고민인데 버리다니 아깝다. 고생을 빼앗긴 사람들, 고민하는 힘을 되찾자. 올라가는 삶에서 내려가는 삶으로, 병명을 드러내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약함이 갖는 가능성과 저력을 이용한 삶의 선택, 무책임체제 등”<sup>30)</sup>

베델의 집의 정신장애인들은 혼자만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집단의 힘에 의존한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알아주는 동료들을 만나면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고 달렸던 말문이 열리면서 사고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성경에서의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라는 ‘섬김’과 ‘봉사’를 이르는 말이 있다. 디아코니아의 최종 목표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나 사랑의 적선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이 사회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 즉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다(신명숙, 1999a, 356-357). 돌봄과 회복의 의미를 포괄하는 디아코니아의 실천은 개인의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공동체가 지지와 위로를 보내고 함께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회와 소속감 경험, 건강한 상호의존을 통해 전인적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 상담과 같은 맥락으로서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의 상호관계를 핵심으로 삼는다.<sup>31)</sup>

만약 디아코니아의 실천으로 유튜브 내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면,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광범위하고 접근이 용이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상담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온라인상의 영적 치유 공동체로서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 4. 정보제공과 접촉점으로서의 영상 콘텐츠-‘yesHEis’

‘yesHEis’<sup>32)</sup>는 전 세계 3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사용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공유하는 채널이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2시간마다 말씀을 공유하고 라이브채팅을 통해 신앙과 관련된 상담하기도 한다. 웹사이트,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을 공유한다. ‘걱정 말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살아있다.’, ‘내 영혼은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하는가’ 등 교회를 떠나 다양한 문제를 안고 방황하거나 치열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내면의 갈등을 겪으며 혼자 그 고통을 안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영상으로 서로 공유하고 댓글을 달며 자신이 받은 경험을 나누거나 이용자가 직접 자신이 만든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채널은 미국, 라틴아메리카, 인도, 한국 등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 개설되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yesHEis Latin America’는 공유된 영상이 600개에 달한다.<sup>33)</sup>

변화가 빠르고 복잡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과 집단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대

30) 베델의 집 사람들, 2008. 베델의 집 사람들. 궁리. 송태욱 역.

31) 이호선, 2019. 한국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과 방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2), 272

32) yesHEis Korea, 2019.10.10 (2017-08-16, 구독자 1.11천명, 최고 조회수 8.9만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1aZ\\_525VRAty5sYpxVvVHg](https://www.youtube.com/channel/UC1aZ_525VRAty5sYpxVvVHg)

33) yesHEis Latin America, 2019.10.10. (2011-06-13, 구독자 23.9만명, 최고 조회수 691만회). <http://www.youtube.com/user/Yesheisespanol>



두되고 있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서로 상호작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체의 능력으로 새로운 통찰을 이끌어 낼 수 있다.<sup>34)</sup> ‘yesHEis’와 같이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독창성을 살려 영상과 메시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들의 상호작용이 창출하는 집단지성의 발현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내게 될지 심히 기대가 된다.

## 5.비영리단체-‘LIFE’

라이프(LIFE, Nonprofits & Activis, 2014-05-08, 구독자 5천4백 명, 최고 조회수 71만 회)는 2013년 12월 3일에 출범한 비영리민간단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가 몇 년째 지속되고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 오른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살예방행동포럼이다. 이 채널은 강연, 콘서트 하이라이트, 자살유가족이 전하는 희망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말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살유가족(suicide survivor)을 돌아보는 의미있는 사역을 한다. 일반인에 비해 자살 시도 경험이 7.6배가 넘는 고위험군이지만 관심 부족 사각지대에 머무는 자살유가족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람의 남겨진 가족들이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sup>35)</sup>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은 사람의 남겨진 가족들뿐만 아니라 한 문화권에서 생물학적인 관계나 결혼, 입양, 기타 관습 등으로 친척의 지위를 얻은 친족 집단의 일부를 호칭하며 즉 지역 센터에서는 “자살유가족”을 자살생존자로 이해하기도 한다.<sup>36)</sup> 이렇게 남겨진 자살유가족들의 아픈 고백과 회복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자살을 예방하고자 라이프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 6.김동호 목사 아카이브 ‘날마다 기막힌 새벽’

김동호 목사 아카이브(Education, 2019-04-27, 구독자 5.93만명, 최고 조회수 16만회)<sup>37)</sup>에 새벽 6시 영상이 올라오면 몇 시간 만에 조회 수가 1만회를 넘어가고 하루에 5만 명 가까이 본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기도회에 남겨진 댓글은 김 목사를 ‘암 친구’라고 부르는 환자와 힘을 얻는다는 가족들이 많다. 그는 폐암 진단을 받고 힘겨운 항암 치료 중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몸은 의사가 고치지만 암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자세를 갖는지”라고 하며 “종일 암과 죽음을 생각하고 매달리게 되는 암 친구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기를 불어넣어 주고 싶어서 작심하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호 목사는 암환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가장 큰 항암제라고 말하며 유튜브와 함께 암환자와 가족을 초대할 힐링콘서트로 진행하고 있다.<sup>38)</sup>

얼마 전 100회 기념일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에서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 현재 암을 앓고 있는 이들, 환우의 가족들 그 외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의 신앙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기도했다.

34) 김유선, 2017.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활동에 나타난 집단지성 양상.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35)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http://www.suicide.or.kr/>

36) 박혜영, 2019. 자살로 부모 상실한 기독교인 유가족의 성장 경험.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37) 김동호, 2019. 10. 10. 날마다 기막힌 새벽. [https://www.youtube.com/watch?v=r9mGQP\\_4MFs](https://www.youtube.com/watch?v=r9mGQP_4MFs)

38) 국민일보, 2019. 9.20. 암 친구들 위로와 기도, 가장 신나는 일. <https://news.v.daum.net/v/20190920000424180>

## V. 결론-유튜브 기독교 상담의 새로운 방법 제안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의 상담윤리규정에 따르면, “기독교상담가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엡 2:8)를 고수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여야(마 22:39)하며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으로 삼아 올바른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고, 기독교 공동체 간의 친밀하고 헌신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변화와 성장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39)</sup>

기독교상담은 내담자간의 관계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비성경적인 사고, 감정, 행동을 성경적인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재교육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정정숙, 1994, 29).<sup>40)</sup> 이처럼 기독교상담이 일반상담과 차별화된 점은 심리적인 고통 감소뿐만이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다. 전인적 치유로서, 상담자와 내담자, 그리고 놀라운 상담자이신 성령님의 삼자의 관계 안에서 치료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힘입어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까지 돌볼 수 있어야 한다.<sup>41)</sup>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단지 잘 선택된 전문적 기술을 넘어 기독교상담자로서의 올바른 세계관과 영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기독교상담의 바탕이 되는 기본전제에서 기독교상담이 가진 독특성을 나타나기 위해 상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상담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강용원, 1993).<sup>42)</sup>

유튜브 내에서의 상담은 온라인 상담이 가지고 있는 편의성, 익명성, 신속성, 경제성, 접근의 용이성 등의 특성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대면 상담과는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상담을 진행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누군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여 훼방을 놓거나, 주제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에 기독교상담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유튜브 내의 상담 관계 안에서 타인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도구 자체가 바로 상담가 자신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 가운데 함께 대처할 제1조력자는 보혜사 성령님이며, 제2조력자들은 패널로 참여한 전문인들, 마지막으로 제3조력자들은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조우네 마음약국’처럼 같은 병을 앓는 환우나 그의 가족들, ‘베텔의 공동체’처럼 같은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 그리고 주제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등장하여 제2조력자가 될 수 있다. 제3조력자의 경우, 초기에는 교회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집단지성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이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여 온라인상의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유튜브 내의 채널을 개설한 상담자가 유명하거나 이슈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서 주목받지 못한다면,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용자와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yesHEis’나 다큐멘터리 ‘중독’과 같은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상담가는 영상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업데

39)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윤리규정, 2014.11.30. 시행. <https://kecs.jams.or.kr/co/main/jmMain.kci>

40) 정정숙, 1994. 기독교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41) 김경미, 2018.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과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42) 강용원, 1993. 기독교상담의 독특성. 고신대학교 학생생활연구, 8:3-13

이트와 지속적인 활동이다. 또한 온라인상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페 등 다양한 SNS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온라인상의 관계망은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오프라인 모임, 면대면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치유공동체로 구현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는 많이 무너져 있고 교회 안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 최근 교회 내의 그루밍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상담할 경우, 교회 내 구성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누군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이 책임을 무너진 가족 공동체와 무관심한 교회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기술보다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을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진실된 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발달은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쩌면 변화된 시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기독교상담가로서 우리는 교회와 상담센터 밖의 상담 즉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유튜브 내에서 상담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공간에서 단 한 명의 내담자라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새로운 시도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할 당위성을 갖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 김경미(2018). 기독교상담자의 정체성과 딜레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김유선(2017).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활동에 나타난 집단지성 양상.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박혜영(2019). 자살로 부모 상실했던 기독교인 유가족의 성장 경험.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2. 학술지

- 강진구(2019). 유튜브의 기독교세계관적 이해와 활용. 기독교학문학회
- 강연정(2010).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기독교 상담학적 접근. 복음과상담, 15, 39-75
- 박우철(2018).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상담.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05-120
- 송영은, 장원호(2013). 유튜브(YouTube) 이용자들의 참여에 따른 한류의 확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155-169.
- 이호선(2019). 한국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과 방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2), 263-296
- 하경희(2014). 정신장애인 동료지지활동 프로그램이 동료지원가의 회복에 미치는 효과. 재활복지 18(1), 31-52. 재인용.

### 3. 도서

- Geoffrey Parker, Marshall W. Van Alstyne, Sangeet Paul Choudary(2017), 플랫폼 레볼루션. 이현경 역. 서울: 부치, 32-37
- Kevin Allocca(2018). 유튜브 컬처. 엄성수 역, 서울: 스타리치북스, 392-395.
- 강용원(1993). 기독교상담의 독특성. 고신대학교 학생생활연구, 8:3-13.
- 김문구, 박종현, 조영환(2010). 흔히 보이는 IT 소비자행동의 이해. 서울: 전자신문사.
- 베델의 집 사람들(2008). 베델의 집 사람들. 송태욱 역. 서울: 궁리.
- 정정숙(1994). 기독교상담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 4. 인터넷사이트 및 자료

- CTS 뉴스, 2019. 7. 3. 왕따의 아픔을 딛고 그들 위해 뛰는 홀딩파이프 김성빈 대표.  
<http://www.cts.tv/news/view?ncate=THMNWS04&dpid=2511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9. 2. 25.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617840>
- 국민일보, 2019. 6.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1212280>
- 국민일보, 2019. 9.20. 암 친구들 위로와 기도, 가장 신나는 일.  
<https://news.v.daum.net/v/20190920000424180>
- 노컷 뉴스, 2019. 7.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3253526>
- 대학내일20대연구소.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가 말하는 유튜브의 모든 것'. 2018. 9. 10.  
<https://www.20slab.org/>
- 미주중앙일보. 2019. 8.31. 유튜브 스타가 알려주는 '유튜버' 지름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558312](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558312)

블로터. '유튜브' 폭 빠진 한국, 월 사용시간은 460억분. 2019. 9.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5022>

투데이신문 '홀딩파이프', 김성빈 “상처받은 10대, 소통의 공간 절실” 2016.11.18.

[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61](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61)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http://www.suicide.or.kr/>

한국복음주의상담학회 윤리규정, 2014.11.30. 시

행. <https://kecs.jams.or.kr/co/main/jmMain.kci>